

全循義의 생애와 저술활동에 관한 연구

김영목¹ · 윤종빈² · 전병훈*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2: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Research on The Lineage and Writing Works of Jeon Sun Eui

Yeong Mok Kim¹, Jong Been Yoon², Byung Hun Jeon*

Department of Pathology, 1: Department of Oriental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Oriental Philosophy, College of Liberal Arts, Ch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Cheon SunEui(全循義)'s lineage, life, ChimGuTaekIlPeonJip(鍼灸擇日編集) and SikRyoChanYo(食療纂要)'s subjectmedical history. Cheon SunEui(全循義)'s position underestimated that it's associated with the reality of politics in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medical history. Accordingly, Cheon SunEui(全循義)'s the healing art and studies remain poorly characterized. To understand the role of Cheon SunEui(全循義)'s studies, we examined that his lineage and life. We made a complete translation Cheon SunEui(全循義)'s ChimGuTaekIlPeonJip(鍼灸擇日編集) introduction and confirmed importance alternative choice in the practi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e also identified that SikRyoChanYo(食療纂要) introduced hothouse methods using Korean paper and ondol, food store and fish store methods.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is book is one of the diet of our time.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Cheon SunEui(全循義)'s life and literary work feel keenly the necessity of study in korea medical history. Because of the actual politics place estimate, Cheon SunEui(全循義)'s life and science underestimate. However, his books excavated. Old values cut red tape, following studied realized about his medical art and medical ideas.

Key words : Cheon SunEui(全循義), SikRyoChanYo(食療纂要), ChimGuTaekIlPeonJip(鍼灸擇日編集), acupuncture and moxibustion(鍼灸).

서론

全循義(생몰연대미상)는 朝鮮初期 세종대부터 세조때까지 약 30여 년간¹⁾ 궁중 御醫였다. 그는 의관으로서 활발한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 저술을 통해 민생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학자이다. 특히 이러한 그의 의관으로서의 활동은 조선초기 중국의학의 절대적 영향하에 있던 한국의학계를 탈중국화 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²⁾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로도 전순의의 한국의학사적 위상은 자못 중차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최근 발굴된 『山家要錄』과 『食療纂要』에 의하면, 그는 한지와 온돌을 이용하여 온실을 만들어 식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와 같은 성과는 서양보다 150 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동양에서도 최고의 기록으로 평가받

고 있다.³⁾ 그리고 『食療纂要』는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을 모아 놓은 책으로 음을 달아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대중화시킨 현대생활에서의 식이요법(食法)을 방불케 한다. 그리고 『鍼灸擇日編集』은 그보다 150여 년 후의 許濂(1546~1615)과 許任(1570~?1647)의 鍼灸學에 영향을 끼친 조선초기 최고의 침구전문서적이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도록 한국의학사에서 그의 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한국의학사적 위상과 업적은 문종의 독살설⁴⁾과 결부되어 그의 의술 및 학문 활동

- 1) 전의감 의관으로서 전순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1410년부터 1466년까지이다. 따라서 어의로 재직할 시기는 아무리 적게 보아도 27년 이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 현재까지 한국의학사에 있어 침구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허준과 허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순의는 이들 두 사람보다 시기적으로도 150 여 년이 앞설 뿐만 아니라 조선중기 침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 『침구택일편집』(세종29년 1447년)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 3) 신승윤, 어의 전순의 - 식이요법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 기대 - 전북중양신문, 2003. 11. 19(수), 7면
- 4) 상동

* 교신저자 : 전병훈,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 E-mail : omdjbh@wonkwang.ac.kr, · Tel : 063-850-6835

· 접수 : 2007/01/03 · 수정 : 2007/01/15 · 채택 : 2007/01/26

이 폼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 전순의에 대한 평가는 “세조의 비호아래 문종을 독살하였고, 그 근거로 세조의 찬탈이후 전순의의 벼슬길이 탄탄대로였음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사실 세조의 등극과 함께 전순의는 좌익원종 1등공신에 녹훈되고, 정2품 자헌대부동지중추원사를 제수 받았다.

그러나 기존 전순의에 대한 평가 역시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록의 기록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全循義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全循義에 대한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로서 전순의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대한 재고를 제기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이상의 기존 평가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조에 의하여 상호군·대호군·첨지중추원사 등의 관직을 제수 받은 직책은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명분상의 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조의 왕위 찬탈 후 좌익원종공신을 선정할 때, 全循義의 선배인 盧仲禮(?~1452, 兪知中樞)도 함께 1등으로 녹훈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중례 역시 전순의와 함께 어의의 신분이었으며, 세조의 총애를 받은 어의는 전순의에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150여년 후인 『鍼灸經驗方』의 저자인 許任(1570~?1647)은 천민출신으로 선조와 광해군을 진료한 공으로 당상관에 오르는 파격 승진을 한 예가 있다. 따라서 전순의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재고되어야 하며, 차후 좀 더 긴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는 전순의의 가계와 생애 그리고 저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전순의에 생애와 학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문헌으로 전해오던 그의 주요저작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전순의의 의술과 학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보다는 그의 가계와 생애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의학사에 있어 허준과 같은 이가 개인적으로 의학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다면 전순의는 의학뿐만이 아니라 민생의 생활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로서 평가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론

1. 가계 및 생애

全循義는 허준과 허임 보다 150여년 앞선 시기에 태어나 활동한 궁중어의로서 조선 초기 의학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30여년을 어의로 지내는 동안,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의였고 한편으로 어의를 양성하는 교수를 역임한 조선 초기 왕실의 대표적인 의관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조의 비호아래 문종을 독살한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의관으로서의 활동과 조선 초 민생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그의 노력은 폼하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어의로서의 전순의의 가계와 생애 및 저술 활동을 통해 향후 그의 의학사상의 체계적 조명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2003년에 신승운(성균관대 문헌정보학) 교수는 『司馬榜目』에서 전순의의 아들인 全碩童의 진사시 합격 기록을 찾아냈다. 이에 전순의의 가계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신교수에 의해 全循義가 鎭安全氏임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의 전순의의 가계에 대한 자료는 전연 발견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승운 교수의 자료 발견도 그의 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장은 전순의의 가계의 일단을 『司馬榜目』에 나타난 전순의의 本貫과 論者が 찾아낸 趙從耘의 『氏族原流』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전순의의 행적을 통해 그의 생애의 편린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논자는 우선 전순의의 가계의 일단을 엿보기 위해 기존 자료를 근거로 전순의의 가계를 추적하여 보았다.

1) 가계

전순의의 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북중앙신문(2003년 11월 18일·19일)이다. 이 신문은 양일간에 걸쳐 「어의 전순의」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신승운 교수의 인터뷰와 천안전씨종친회의 입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마방목에는 전순의의 아들 全石童의 석자가 ‘돌 石’字로 되어 있는데 족보에서는 ‘를 碩’字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선대 관직기록의 부정확성.

셋째, 거주지는 서울로 추정.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전씨종친회에서 제시한 가계도 表 1과 논자가 『氏族原流』 表 2에서 찾아낸 가계도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첫째의 문제에 대하여 천안전씨종친회측은 족보의 오류로 인정하고, 『司馬榜目』의 기록을 존중하고 있다. 그런데 趙從耘⁹⁾

5) 문종의 죽음이 전순의의 독살에 의한 것이라는 설을 주장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최완기, 『조선충의열전』, 돌베개, 1998

② 李鐘鎬, 「조선왕조실록으로 본 문종독살설」, 2006, 07, 05 (<http://blog.daum.net/ranbo/9227051>).

③ 신승운, 어의 전순의-식이요법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 기대-, 전북중앙신문, 2003, 11, 19(수), 7면 등이다.

6) 노중례 역시 출생연도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1423년에 戶曹의 司宰監 副正의 자격으로 명나라에 가서 국산과 중국산 약재를 감별하는 일을 했다.

7) 전순의의 생애에 대해서는 金斗鍾의 『한국의학사』(탐구당, 1976)와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자가출판, 1963) 등에 산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에 신승운 교수는 전순의의 저서인 『食療竅要』를 발굴하여 화계에 소개하였다. 『새로 발견된 식료찬요에 대하여』, 『2003년도 한국서지학회 추계학술세미나발표요지』, 2003, 11, 8, 아단문고 그러나 현재 논자가 파악한 바로는 전순의의 구체적인 생애를 위주로 다른 연구는 없고, 이 연구가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8) 육상원, 어의 전순의-〈하〉 저서와 한의학계의 평가-, 인터뷰 내용, 전북중앙신문, 2003년 11월 19일(수), 7면.

9) 趙從耘(1607-1683)은 『氏族原流』의 편자이다. 그에 대하여 『한국민족대백과사전』(동방미디어)에는 “1607년(선조40) ~ ?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豐議, 자는 伯農, 호는 松窓, 사헌부 장령 諫의 조카이다. 관직은 찬선을 자냈고, 글을 잘 썼으며, 謬學에 밝아 씨족원류를 저술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보경문화사가 축쇄영인한 『氏族原流』의 해제는 이 보다 구체적이다. 趙從耘은 附吏曹參議 滌의 子로 風玉軒公의 孫, 漢平君 趙益貞의 6대손, 淮陽公 趙愼의 9대손이다. 『氏族原流』, 趙從耘, 保京文化社, 해제, 1991)

의 『氏族原流』에는 석동의 석자는 『司馬榜目』의 기록과 같으나, 童字를 重字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氏族原流』의 저자인 趙從耘이 移記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司馬榜目』의 기록을 따라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司馬榜目』과 『氏族原流』의 기록이 일치한다. 그러나 신교수의 지적과 같이 천안전씨족보에 게재된 선대에 관한 기록은 신빙도가 떨어진다. 즉 전순의의 조부인 全天吉의 관직이 典翰으로 기록된 것과 부친 全仁奇의 관직이 공리참판이라고 한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각종실록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¹⁰⁾

세 번째 전순의의 거주지에 대한 문제는 전순의 자신이 3대에 걸쳐 30여년간 궁중 어의를 지냈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런데 전순의는 세조 12년(1466)을 끝으로 그의 기록은 실록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즉 이후부터 전순의의 행적을 추적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1466년은 이미 전순의는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있어 거동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늙고 병든 상태였다. 이러한 정황은 이미 5년 전 실록의 기록에 “전순의가 늙고 병들어 醫生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¹¹⁾”는 것에서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1466년 이후 서울을 떠나 조상들의 世居地인 鎭安으로 낙향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는 『司馬榜目』과 『氏族原流』를 근거로 보면, 전순의 이전의 최소 4대조 이상의 선대들이 전북 진안에 세거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고려말부터 鎭安에 鎭安全氏가 세거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氏族原流』의 편저자인 조종운이 한국내 씨족의 가계를 역추적 하던 당시는 17세기였다. 이 때 그가 추적하고, 밝혀낸 全氏는 天安全氏를 비롯하여 慶山, 旌善, 靈光, 沃川, 鎭安 등 총 14개의 本貫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로써 본다면 17세기에도 天安全氏와 鎭安全氏가 이미 나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司馬榜目』 기록의 신빙성을 확인해 주고 있는 자료이다. 다만 『氏族原流』의 기록은 鎭安을 본관으로 하는 첫 인물로 全循義가 등재되어 있고, 그의 아들(全碩童)과 손자(全奇洞·全世豪<忠順>)까지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자료이다.

물론 전순의가 전북 진안으로 낙향했다는 근거 및 자료는 확인할 길이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가 세조 3년(1457)에 받은 田地인 楊州와 豊壤으로 낙향했을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전순의의 거주지역을 추정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表 1. 천안전씨증친회에서 제시한 가계도¹²⁾

天安 全氏 全循義의 家系圖									
1대	29	37	38	39	40	41	42	43	58
壽	樂	呂	熙	文	天	仁	循	碩	洪
			集賢殿						
			直提學	1331년생	1360년생	1393년생	?	1469년	
			兜平君	泰兜陽	壽都隱	大司諫	工曹參判	진사	
			君						

10) 신승은, 「어의 전순의」 - 천안전씨설의 내막 -, 전북중앙신문, 2003. 11. 18(화), 7면.
 11) 『世祖實錄』 18卷 5年 10月 24日 (壬申), 「傳曰: “讓寧已往下道, 今不可招之. 全循義老且病, 無致詢醫生者”」
 12) ① 천안군·두평군(전북중앙신문, 2003년 11월 18일, 7면), ② 天安全氏大同譜, 文孝公派, 總卷, 1986

表 2. 『氏族原流』 찾아낸 가계도¹³⁾

鎭安全氏		
全循義	碩童	(女)奇洞
資憲行同知中樞院事	→ 新溪縣令, 室司直全州	→
	李義嘉女	(子)世豪(忠順)

2) 생애

전순의의 가계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해지는 자료가 거의 없어 파악하기가 곤란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애의 편린들은 30여년간의 궁중 어의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세종·문종·단종·세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생애의 일단을 드러내고자 한다. 『세종실록』上 전순의에 대한 기록은 4차례 보이는데, 실록에 나타난 전순의의 생애의 첫 공식적인 기록은 1440년(세종 22년)에 세종이 금성대군의 폐유에 공이 있는 의원들에게 상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 때 盧仲禮¹⁴⁾에게는 鞍具馬 한 필과 발 5결을 주었고, 전순의에게는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이 때 금성대군의 병을 치료하는데 전순의는 노중례의 밑에서 금성대군의 병을 치료하는데 보조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全循義 나이는 대략 20대 후반 정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5년 후 한방의학 백과사전격인 『醫方類聚』를 편찬 완성하는데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때 노중례는 전순의를 중심으로 한 崔閔·金智 등이 편집한 내용을 감수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醫方類聚』가 완성되기까지는 세종의 적극적인 의술장려 정책과 집현전 학자인 金禮蒙과 柳誠源 閔普和, 金汶, 辛碩祖, 李芮 등의 학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의관 全循義·崔閔·金智 등의 공동 참여로 총 3년 여에 걸친 작업을 통해 365권의 방대한 의서가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醫方類聚』를 완성한지 2년 후(1447년) 정월에 全循義는 金義孫과 함께 『鍼灸擇日編集』을 저술하였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438년(세종 20년) 3월부터 매년 침구전문생 3명씩을 敍用하여 三醫司에 1명씩 배치하기 시작한 후, 침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⁵⁾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세종의 명에 의해 興天寺에서 일본인 승려 崇泰가 시술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견문을 더 넓히는 계기를 가졌다.

이처럼 내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한 전순의는 왕을 비롯한 여

13) 趙從耘 編著, 『氏族原流』, 보경문화사, 축석영인본, 1991, 737쪽
 14) 노중례(?~1452). 세종 때의 醫官으로 1423년에 司宰副正으로서 대호군 金正玄 등과 함께 명나라로 가 국산 약재 62종 중에서 중국산과 다른 것을 비교하여 약효의 적부를 감별 하였다. 그 뒤 1430년에는 節日使의 자격으로 명나라로 가 明의 禮部에 청하여 국산 약초들의 眞假를 大醫院 의사들에게 判驗케 하여 약초로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20종에 달하였다. 1431년 12월에는 典醫監正으로서 同副正 朴允德 등과 함께 약용식물학 서적인 『鄕藥採取月令』을 편집하고 1433년에는 『향약집성방』 85권을 박윤덕 등과 함께 편집하였다. 1년 뒤 3월에는 判典醫監事로서 『胎產要錄』 상·하 권을 편성하였는데, 상권은 주로 胎胎 교양의 법을 논하고, 하권은 영아의 보호술을 기술하였다. 1445년 4월에 첨지중추원사에 임명되고 그 해 10월에 『醫方類聚』를 편집할 때 첨지중추원사로서 감수의 일을 맡았다. 그 뒤에 여러 대군 및 中宮의 병을 치료해온 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복·沔馬·鞍馬·田給 등의 賞賜를 받았다. 1452년 3월 上護軍으로 봉직하다가 죽었다. 세조 1년 12월에 世祖佐翼原從功臣一等과 僉知中樞로 추서되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15) 孫弘烈, 「조선중기 의술과 의학의 발달」, 『국사관논총』 제56집, 203쪽

러 사람들에게 어의로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다.¹⁶⁾ 그런데 1449년 12월에 동궁을 제대로 구료치 못한 문책으로 직첩을 빼앗기고, 조교로 강등되는 시련을 겪었다. 같은 해에 『山家要錄』¹⁷⁾을 편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鍼灸擇日編集』을 편찬한 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전순의의 시련은 오래가지 않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다시 그의 뛰어난 의술을 인정받아 노중례와 함께 告身을 돌려받았다(문종 1년, 1450년). 이후 2년 뒤 내의 전순의는 密城君 李琛의 병을 전담하여 치료하였는데 마침내 완쾌 되어 왕으로부터 안마를 하사 받았다.¹⁹⁾ 세종의 다섯째 서자인 밀성군 이침을 완치한 공으로 안마를 하사 받은 지 약 20일이 지난 뒤에 전순의는 문종의 등에 난 종기를 은침으로 따서 농즙을 두 서너 흡즙 짜내는 등창 치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때 문종의 종기를 치료한 주치의는 전순의였으며, 邊漢山과 崔泄 등이 그를 보조한 것 같다. 그 결과 문종의 병은 차도를 보이다가 11일 후(1452년 5월 14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문종이 세상을 등진 다음 날 대간들의 주청에 의해 문종을 치료한 전순의 등은 의금부에 하옥 되었다. 의금부에 하옥 된 지 이틀 후에 전순의는 典醫監 廳直으로 또 다시 강등되었다. 전의감 청직으로 강등된 지 약 8개월 만(1453년 1월 4일)에 다시 의정부의 건의로 방면되어 전의감 보다도 왕을 가까이 모시는 내의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내의원에 다시 복직한 지 4개월 만에 대사헌 奇慶 등이 상소하여 또 다시 내의원 출사가 중지되었다. 그 상소의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허리 위 독이 있는 종기는 처음 그 증세가 미미하게 나타나며, 부위가 등이라면 더욱 독이 들어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가 없다”고 한 점.

둘째, 등창은 절대적으로 파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신의 接待와 觀射 및 進膳 등의 일을 삼가도록 주청하지 않은 점.

셋째, 쟁고기는 등창에서 크게 금하는 음식인데, 날마다 雉灸를 올렸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점.

넷째, 등창의 치료는 농하여 자연스럽게 농즙이 흘러나오도록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하지 않았는데, 은침으로 짤

러 인위적으로 농즙을 3·4흡 정도를 짜내어 병을 고의로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상은 문종을 치료하는데 있어 전순의의 이상한 태도를 지적한 奇慶의 상소이다. 이 상소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순의는 문종의 독살설에 직접 관여한 어의로 지목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상소의 내용에서 문종을 독살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단지 병을 오판했거나 치료의 시일을 맞추지 못한 점은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문종독살설에 대한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전순의는 문종의 담당의로서의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약 9개월간 근신한 전순의는 1454년(단종 2년)에 告身을 다시 환급 받는다. 그로부터 1개월 뒤에는 몰수당한 告身을 다시 받는다. 이로써 문종의 주치의로서 전순의의 문책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세조가 즉위함에 따라 그는 좌익원종 1등 공신에 녹훈되고, 6개월 뒤에는 세조 찬탈의 유공자들에게 녹봉을 주기 위해 設官된 무임소의 兪知中樞院事(정3품)를 제수 받는다.²⁰⁾ 이 때 전순의와 함께 左翼原從功臣에 녹훈된 또 한사람의 어의가 盧仲禮이다. 물론 노중례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하직 한 후였다. 따라서 공신 녹훈 후 2년 뒤에(1457) 난신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몰수한 田地를 有功者들에게 포상할 때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순의는 난신으로 처형된 嚴自治의 楊州田地와 李保仁의 豐壤田地를 받았다.

이후 3년 동안 전순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문종의 죽음에 대한 문책에서 벗어난 전순의는 1460년에 『食療纂要』²¹⁾를 완성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食治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한국의학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治食 전문서적이라 할 수 있다.²²⁾

세조7년(1461)에는 行兪知中樞院事를 제수 받고, 그로부터 9개월 후에는 同知中樞院事(참판급)를 제수 받았다. 1463년 7월에 세조의 병환으로 임원준과 함께 입시하여 세조의 병세를 살폈고, 같은 해 11월에는 조顯闇에서 의학을 侍講하기도 했다. 이로써 보면 전순의는 조선초 왕실의 의학장려책에 의해 배출된 의원으로 세조조를 대표하는 의관이었던 것은 물론이고, 후생을 지도하는 의학자였음이 드러난다. 세조로부터 궁중 어의로 활동한 그는 왕의 건강을 책임진 동시에 후생을 양성한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의관이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의학자적 삶은 세조로부터 資憲大夫同知中樞院事(정2품)를 제수받기에 이르렀고, 1466년에는 세조의 부름을 받아 궁중의 원로 어의로서 노사신 등과 더불어 대

16) 盧仲禮가 세조조를 대표하는 어의였다면 그의 후배인 전순의는 세조조를 대표하는 어의였으며, 당대의 명의로 명성을 떨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조실록』, 2卷 元年 8月 16日, “임금이 크게 웃고 장난삼아 李璆로 하여금 주먹으로 이계전을 때리게 하니, 신속주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손으로 때리게 되면, 비록 名醫로 이름난 全循義·任元禧 같은 사람이 좌우에서 서로 교대하며 구호한다 하더라도 끝내 효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② 『成宗實錄』 99卷 9年 12月 12日 (己亥) 조에 “세조조의 全循義·金尙珍도 名醫였다. (世祖朝, 全循義, 金尙珍亦名醫.)”라고 했을 정도였다.

17) 『山家要錄』은 2001년 말 계명대 김용원 교수와 우리문화가꾸기회의 이훈석씨가 우연히 페지터미에서 발견한 후 김영진 (한국농업사학회 명예회장)에게 해제를 의뢰해 와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종합농서이다. 이 책은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 종합농서 중 가장 오래된 농서이며, 그 중에 식품부분은 현존하고 있는 식품서 중 최초의 식품고전이라고 풀이된다(김영진, 『山家要錄』 해제, 고농서국역총서8, 농촌진흥청, 2004, 6쪽). 특히 『山家要錄』에 나오는 온실은 현재까지 세계 최초로 알려진 독일 하이델베르크(1619) 온실보다 적어도 170년 앞선 세계 최초의 것이다. (조선일보, 「세계최초 온실 남양주에 복원」, 2002년 2월 24일자, 17면)

18) 전순의, 『山家要錄』, 김영진 해제, 고농서국역총서8, 농촌진흥청, 2004, 7쪽

19) 『文宗實錄』 13卷 2年 4月 13日 (丁丑) 004, “賜內醫全循義鞍馬, 以治密城君 琛病得差也.”

20) 김영진, 전계서 해제, 8쪽

21) 『食療纂要』는 전순의의 저서로 1460년(세조4년)에 완성된 책이다. 신승은 교수에 의하면, “식료찬요에는 강원도 양양관본과 경상도 감사 손순효가 판각한 상주판본 2종이 있다.”(신승은, “새로 발견된 식료찬요에 대하여”, 『2003년도 한국서지학회 추계학술세미나발표요지』, 2003. 11. 8, 아단문고)고 하였다. 상주판본에 대해서는 성종실록(18년 4월 27일)에 보이는데, 우찬성 손순효가 『食療纂要』를 임금께 올렸다. 이 책은 의원 전순의가 편찬한 것으로 孫舜孝가 경상도 감사가 되었을 때 상주에서 간행하도록 한 것이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 책은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고 하시었다고 하였다(『食療纂要』, 고농서국역총서9, 농촌진흥청, 2004, 12).

22)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식료찬언 해제

獵圖 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상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전순의의 생애의 편린들이다.²³⁾ 그런데 기존 전순의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부정적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의 의술 및 민생의 건강 증진에 대한 노력은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전초로서 전순의의 가계 및 생애 그리고 학문활동에 대한 대강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그의 저술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는 『鍼灸擇日編集』과 『食療纂要』를 중심으로 그의 학문세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2. 학문 활동

전순의의 전 생애를 통해 드러난 저술활동은 『醫方類聚』, 『鍼灸擇日編集』, 『山家要錄』, 『食療纂要』 등이다. 그 가운데 『醫方類聚』와 『鍼灸擇日編集』은 이미 세상에 익히 알려져 있는 의서이다. 그런데 『山家要錄』과 『食療纂要』는 기록으로만 전해 오다가 『食療纂要』는 최근(2003년)에 발굴되어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한 의서인 동시에 오늘날의 식이요법서이며, ‘참살이’²⁴⁾를 권장하기 위한 저서이다.

본 장은 전순의의 저술 가운데 『鍼灸擇日編集』과 『食療纂要』를 중심으로 저술의 동기와 그것의 대체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 전순의 의학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鍼灸擇日編集』의 저술동기와 그 대체적 내용을 살피기 위해 序文의 완역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한다.

1) 『鍼灸擇日編集』에 나타난 전순의의 학문 활동

이미 알려진 대로 『鍼灸擇日編集』²⁵⁾은 세종의 명에 따라 全循義와 金義孫이 공동으로 쓰고, 그 서문은 司直 金禮蒙²⁶⁾이

쓴 것이다. 그것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醫道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약이(藥餌)요, 다른 하나는 침구(鍼灸)이다. 그리고 병을 쉽게 치료하는 방법 중 침구의 시술은 묘한 효능을 갖는다. 그 요체는 마음을 정진하여 손에 미치게 하는데 있다. 영위(營衛)를 살피서 근맥(筋脈)을 변별하고, 공혈(孔穴)의 부위를 밝히고, 척촌(尺寸)의 나뉠을 정할 수 있으면 비록 오래된 고질병이라 해도 어찌 낫지 않는다고 격정하겠는가?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방약(方藥)은 알지만 시침(施鍼)을 모르고, 시침(施鍼)은 알지만 뜸을 모른다고 한다면 상의(上醫)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한 것은 침과 뜸의 중요함을 신뢰한 말이다. 그러나 요즈음 침구의 방법은 저 택일(擇日)의 때로부터 雜出된 것이거나 혹은 길흉업에 미혹되어 있어서 이러한 시술법은 이미 고질병이 된지 오래이다. 이에 내의원 의관 호군 전순의와 사직 김의손은 이러한 시술의 병폐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이에 여러 의서를 모으고, 뺄 것은 빼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人神인 太乙의 경락소주와 天醫도 어려워하여 기피한 조목을 분류하고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미진함이 없는 책으로 완성하여 신(김예몽)의 서문을 붙여 왕께 올렸다. 신 김예몽은 침구란 병을 고치는데 뛰어난 효험이 있고, 또한 즉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여 침구시술의 중요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음양의 기운을 흡수(稟受)하고, 甲은 膽, 乙은 肝에 결부시키면 사람의 모든 장부는 十天干과 분속(分屬)될 것입니다. 春의 井經絡과 夏의 榮經絡은 모두 사계절과 통하므로 시일(時日)과 간지(干支)는 사람의 몸에 따라서 운용되고, 길흉회전은 인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鍼經』에 이르기를 “때를 얻어서 침을 놓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나, 그 때를 놓쳐서 자침(刺針)을 하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은 침구의 방법은 침을 놓는 시기를 가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책을 널리 배포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覬眼의 시기에 길흉을 판별하고, 손을 쓸 수 없는 膏肓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이 요절의 근심을 털어내고, 모두 仁壽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무릇 성인의 감화를 입게 되는 것은 聖朝의 仁心仁政의 그러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1447년(세종 29년) 1월 6일에 봉훈랑 집현전부교리지제 겸 춘추관기주관세자좌경사 김예몽은 삼가 서문을 쓰다.²⁷⁾

23)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전순의 생애의 편린들을 알아보기 쉽게 도표화하여 본고의 뒤에 별첨한다.

24)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서비스, 식료찬언 해제

25) 이 책은 1권 1책의 목판본으로 서문 2장 본문 27매의 다소 적은 분량이다. 나중에 『備急灸法』이라는 책과 함께 『重刻鍼灸擇日編集』이라는 제호로 복간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 앞서 실려 있는 인용서적으로 『千金方』, 『黃帝明堂灸經』, 『補註銅人陰穴鍼灸圖經』, 『寶漢卿編集鍼灸指南』, 『鍼灸腦受書括』, 『事林廣記』, 『齊人千金月令』, 『元龜集』, 『龍木總論』, 『易簡方』, 『龍樹菩薩眼論』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명당구경』, 『침구광에서괘』, 『용수보살안론』 등과 같은 책은 『의방유취』에만 보이는 서명으로 저술시기가 매우 가까움을 짐작하게 해 준다. 본문은 서술된 문장이 아니고 각 조문의 작은 항목마다 약호로 출전이 밝혀져 있어 세밀하게 인용서를 대조 분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면 “鍼灸吉日 出銅人 元龜 廣記”라 밝혀 놓았고 인용서마다 서로 차이가 있는 점을 “諸方無此法” 등으로 표기해 놓았다. 목차는 침구 길일(鍼灸吉日), 주천의길일급잡기방통법(推天醫吉日及雜忌傍通法), 기침구법(忌鍼灸法), 추사시인신기(推四時人神忌), …… 의안급기일(醫眼禁忌日), 잡기법(雜忌法), 후천색법(候天色法), 구고황기법(灸膏肓忌法), 구애잡설법(灸艾雜說法), 점애화법(點艾花法), 장계유구고황기법(莊季裕灸膏肓忌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보이는 인용서를 세밀하게 대조하여 분류하는 의서편찬 방식을 통하여 당시에 얼마나 문헌의 고증과 내용의 교감에 열심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26) 김예몽(1406-1469)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光山이며 자는敬甫. 조부는 華이고, 아버지는 司成 朔이며, 어머니는 趙臣佑의 딸이다. 1429년(세종 11) 생원시를 거쳐 1432년 식년문과에 응과로 급제하고 集賢殿正字에 제수되었다. 그 뒤 著作郎을 거쳐 감찰에 제수되어, 1440년 통신사의 서장관에 일본에 다녀온 뒤 과거의 시관이 되어 많은 인재를 등용시켰다. 1447년 集賢殿校理로 승진하고, 문종이 즉위하자 知承文院事가 되었다. 단종 때에는 執義 副提學을 지내고 세조 즉

위에 공을 세워 좌익공신에 책록되고 호조참의에 올랐다. 그 뒤 1460년에는 仁順府尹으로서 謝恩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동지중추원사를 거쳐 司諫이 되었다. 이때에 후학들에 대한 교육에 힘써 자주 시험을 보고 제술이 우수한 자에게는 반드시 포상하여 학문을 권장하였다. 그 뒤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가 대사성에 올랐고, 1466년 拔英試에 아들 性源과 함께 급제하여 한때 조정과 재야의 선망을 받았다. 이어 1468년 공조판서에 올랐으나 신병으로 사임하고, 고향인 충주로 낙향하였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매우 뛰어나 시관이 되어 뽑힌 인재가 거의 뒷날 조정의 현직을 차지하여 氷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 성품이 온아하고 청렴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詞賦에도 능하였다. 시호는 文敬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7) 『鍼灸擇日編集序』, 전순의·김예몽 공저, 『醫之道有二焉曰藥餌也, 鍼灸也, 而療病簡易之法, 莫妙於鍼灸. 要在精於心應於手耳, 苟能審榮衛辨筋脈 明孔穴之部 定尺寸之分 則雖沈疴痼疾何憂乎弗瘳, 古人云知藥而不知鍼, 知鍼而不知灸, 不足爲上醫, 信乎鍼灸之爲重也. 然, 鍼灸之法雜出於諸方擇日之際 或迷於吉凶業 斯術者皆病焉, 內醫院醫官護軍臣全循義, 司直臣金義孫 攻乎此者也, 投撫群書, 稟集一編, 人神太乙之所

『針灸擇日編集』은 1447년(세종 29)에 內醫院醫官이었던 전순 의와 김의손은 여러 가지 醫書를 참조하여 針灸 할 때의 吉凶과 擇日의 선택의 중요성을 문제로 삼아 저술된 침구전문서이다. 『序文』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것의 저술 동기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醫道의 두 가지 방법은 藥餌와 鍼灸이다. 특히 침구는 병의 초기에 제 때에 시술을 한다면 이 보다 빠른 효능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침구를 놓을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침구 택일의 방법은 길흉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의존한 경향이 있어 큰 병통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그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鍼經』의 “때를 얻어서 침을 놓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나, 그 때를 놓치고 刺灸을 하면 병을 고치기 더욱 어렵다.”는 말을 인용하여 擇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鍼灸는 가장 중요시되던 치료법의 하나로 침구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한 세종의 명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책의 原刊本은 없애지고, 抄本이 일본에 흘러들어 갔다가, 1890년 중국에서 복간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책을 자국인의 저술로 오인하기도 하였다.²⁸⁾ 침술에서 『針灸擇日編集』은 후대 許浚의 『東醫寶鑑』과 許任의 『鍼灸經驗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전순의의 단독 저서인 『食療纂要』의 序文을 통해 또 다른 그의 학문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2) 『食療纂要』에 나타난 전순의의 학문 활동

虛仲禮가 세종조의 대표적인 어의였다면 전순의는 세조조의 대표적인 어의였다.²⁹⁾ 全循義는 조선 초기 虛仲禮와 함께 당시 첫 손에 꼽히는 명의로 명성을 날렸다. 그런 전순의가 나이가 들어 노쇠하자 장차 궁중의 의학교육을 대신할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할 정도로 그는 조선 초기 몇 안 되는 실력을 소유한 천재적 醫家이었다.³⁰⁾

『針灸擇日編集』이 한의학 전문서적이라고 한다면 『食療纂要』는 전문서적인 동시에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예방의학 성격의 식이요법서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음식이 으뜸이요, 약이는 그 다음이다. 비록 이와 같이 풍한서습을 때에 맞추어 대비하고, 음식과 남녀의 절도 있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병이 생기겠는가? 라고 말할지 몰라도 혹 사계절의 순환이 어긋나 平日이 오히려 적고, 亂日이 오히려 많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쁜(乖戾) 기운을 느낄 수가 없겠는가? 이로써 고인들이 처방을 내리는데 있어서 먼저 식

품으로 치료하는(食療)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식료로 효과가 없다면 약으로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식품에서 얻는 힘이 약에서 얻는 것에 비하여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오곡·오육·오과·오채로써 하는 것이지, 어찌 마른 풀과 죽은 나무의 뿌리에 치료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고인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식료를 우선한 까닭을 가히 알 수 있다. 삼가 우리 聖上께서는 神農, 黃帝, 岐伯, 扁鵲의 의술을 조술하시고, 늘 백성들이 병들어 고생하는 것으로부터 구휼하고자 늘 여러 의인들이 식치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니, 이는 의인들이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이 악화되는 때를 당하여 여러 처방을 상고하기가 어려우니, 신(전순의)은 『食醫心鑑』, 『食療本草』, 『補闕食療』, 『大全本草』 등의 처방을 상고하여 일상생활에서 식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뽑아내어 45門으로 정리하여 왕께 바쳤는데, 왕(세조)께서 『食療纂要』라고 손수 이름을 지어 주시고, 곧 서문을 쓰라고 명하셨다. 또한 교시하여 말하기를, “이 처방 중에서 소용되는 곡물과 고기류, 야채, 과일류 등의 명칭은 비록 늘 먹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서로 간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 門의 物類의 밑에 정음을 부기하여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는데 의혹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 왕께서는 博施濟衆의 도가 지극하고도 극진하시다.

전순4년(세조6년, 1460, 경진) 11월 가정대부행용양위상호군 신 전순의는 삼가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씁니다.³¹⁾

전순의의 여러 저서 가운데 『食療纂要』³²⁾는 친히 세조의 명에 의해 착수되어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서명을 직접 이름 지어주는 한편 서문을 쓰게 하였다. 특히 이 책의 저술 동기는 서문에서 제시하듯이 의원이 아닌 일반 백성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술한 것이다. 이에 각 物名 밑에 正음을 달아 보는 이로 하여금 혼동하지 않고 쉽게 알아 제 때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醫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의서는 현존하는 교서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식이요법서이며, 예방의학이 강조되는 현대의학에 더욱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³³⁾

이상은 전순의의 여러 저서 가운데 『鍼灸擇日編集』과 『食療纂要』의 서문의 완역을 통해 그것들의 저술동기와 목적을 살폈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순의의 한국의학사적 위상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主, 天醫難忘之所在, 條分類析纖悉無遺書成以進命. 臣序之, 臣竊念鍼灸有劫難之功 而又有立效之能, 信斯術之爲重也. 然, 人受天地之中稟陰陽之氣, 甲膽乙肝臟腑, 自分於十干. 春井夏榮經絡, 皆通於四時 則時日支干與人身而應焉, 吉凶悔吝隨人事而應焉, 故, 鍼經云得時鍼之必除其病失時, 刺之難愈其病 則鍼灸之道 尤莫重於擇日也. 是書之廣布, 蓋欲使人辨吉凶於退服之頃, 療膏盲於投手之餘, 共免天札之患, 同躋仁壽之域. 凡圖於聖化者, 不可不知聖朝仁心仁政之所自歟. 正統十二年正月初六日奉訓郎集賢殿副校理知製 教兼春秋館記注官世子左司經臣金禮蒙謹序.”

28) 손흥렬, 「어말·선초의서의 편찬과 간행」,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1권, 제1호, 1989, 49쪽

29) 『成宗實錄』 99卷 9年 12月 12日 (己亥), “世宗朝, 虛仲禮醫術甚精, 纔歷愈知. 世祖朝, 全循義, 金尙珍亦名醫, 而終於嘉靖, 上重醫術.”

30) 김영진, 전계서 해제.

31) 전순의, 『食療纂要』, 『序文』, “人之處世飲食爲上, 藥餌次之. 雖曰如此風寒暑濕禦之以時, 飲食男女節之以限, 病何由生? 然, 或四時失序 平日尙小亂日尙多, 豈無人感乖戾之氣乎? 是以古人立方先用食療, 食療不愈然後藥治, 且云將食得力大半於藥. 又曰治病當以五穀五肉五果五菜治之, 奚在於枯草死木之根莖哉? 此古人治病必以食療爲先可知矣. 恭惟我聖上祖述堯黃岐扁之妙 常懷恤民獨病之苦, 每勅諸醫不用食治之法, 此醫家之所不忘也. 難然臨病急遽之際, 難考諸方, 故, 臣以食醫心鑑食療本草補闕食療大全本草等方考選常用食治簡易之方 爲四十五門以進, 賜名曰食療纂要, 仍命序之. 又教曰是方之中所用殺肉菜果, 雖是恒食之物名, 實互紊恐其舛訛, 故, 各門物類之下, 或附以正音, 使人人見之了然, 用之無疑于以見. 聖上博施濟衆之道至矣. 虛矣. 天順四年庚辰冬十一月嘉靖大夫行龍城衛上護軍臣全循義拜手稽首謹序”

32) 『食療纂要』를 새로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한 이는 신승운 교수(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이다.

33) 『食療纂要』, 전순의 저, 김중덕 역, 고농서국역총서9, 농촌진흥청, 2004, 21쪽

表 3. 全循義의 行적

왕 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태종				永樂		出生年 未詳
세종	22년	1440	庚申	正統5		○ 6월, 금성대군의 궤유에 따라 楊弘遂, 全仁貴, 金智 등과 함께 옷 한 벌을 하사받음
	27년	1445	乙丑	正統10		○ 10월, 『醫方類聚』(365권) 완성. 전순의는 崔閔·金智 등과 함께 편집작업에 참여함. 이 때 첨지중추원사인 盧仲禮가 감수를 함.
	29년	1447	丁卯	正統12		○ 1월, 조선 침구학의 선구격인 『鍼灸擇日緝集』을 金義孫과 共著. 이 책의 서문은 집현전 부교리인 金禮蒙이 씀. ○ 5월, 왕명에 따라 興天寺에 머물고 있는 日本僧 崇泰의 시술을 金智·邊漢山 등과 함께 6시간 동안 지켜보고, 돌아왔는데 그 시술이 자못 효험이 있었다.
	31년	1449	己巳	正統14		○ 12월, 등공을 제대로 구로치 못한 문책으로 직점이 환수되고, 내의원 조교로 강등됨. ○ 『山家要錄』을 편찬(추정)
문종	즉위	1450	庚午	景泰1		○ 4월, 노종례와 함께 고신을 돌려 받음.
	2년	1452	壬申	景泰3		○ 4월, 세종의 다섯째 서자인 密城君 李璘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鞍馬를 하사받음. ○ 5월, 문종의 서거(14일), 문종의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문책으로 의금부에 하옥(15일), 典醫監 廳直으로 강등(18일).
즉위						
단종	1년	1453	癸酉	景泰4		○ 1월, 의정부의 간의로 변한산·최음과 함께 전의감 청직에서 방면되어 전의감보다도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내의원에 다시 출사함. ○ 5월, 대사헌 奇處의 상소로 내의원 출사가 중지됨.
	2년	1454	甲戌	景泰5		○ 2월, 고신을 환급 받음. ○ 3월, 과전을 다시 돌려 받음.
세조	1년	1455	乙亥	景泰6		○ 12월, 좌익원종 1등공신에 녹훈됨. 2년 전에 죽은 노종례도 1등공신에 녹훈됨.
	2년	1456	丙子	景泰7		○ 5월, 세조 친탈 유공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해 設育된 무임소의 叡知中樞院事(정3품)를 제수받음.
	3년	1457	丁丑	天順1		○ 3월, 난신으로 처형된 嚴自治의 楊州田地와 李保仁의 豐壤田地를 받음.
	6년	1460	庚辰	天順4		○ 11월, 『食療纂要』의 序文을 씀.
	7년	1461	辛巳	天順5		○ 7월, 行叡知中樞院事
	8년	1462	壬午	天順6		○ 4월, 同知中樞院事(잠관급)
	9년	1463	癸未	天順7		○ 7월, 세조의 병환으로 임원준과 함께 임시함. ○ 11월, 전순의는 조顯閣에서 의학을 侍講함.
	10년	1464	甲申	天順8		○ 11월, 시약의 공로로 資憲大夫同知中樞院事(정2품)를 제수 받음.
	11년	1465	乙酉	成化1		○ 사헌부에서 南部丞 全碩童(全循義의 子)에게 科罪할 것을 건의함.
	12년	1466	丙戌	成化2		○ 12월, 노사신 등과 더불어 굴내에서 大獵圖 놀이를 함.
예종	1년	1469	己丑	成化5		○ 아들 全碩童 增廣 進士試에 승격.
성종	9년	1478	戊戌	成化14		○ 全碩童 忠경도 延豐縣監 재직. ○ 全循義의 卒年 未詳
	16년	1485	乙巳	成化21		○ 全碩童 新溪縣令 재직.

결 론

본고는 지금까지 조선초 의학사에 있어서 하나의 축을 담당 할만한 전순의의 가계와 생애를 위주로 다룬 것이다. 그동안 조선초기의학사에 있어서의 전순의의 위상은 실제와 다르게 현실 정치적 입장과 관련되어 평가되어 왔다. 그 결과 전순의의 의술과 학문에 대한 연구는 등한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전순의의 의술과 학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의 일환으로 그의 삶과 가계를 위주로 고찰했다.

본고의 전반부는 가계와 생애를 다루었고, 후반부는 저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그동안 전순의는 그의 생몰연대와 그의 본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천안전씨 兪平君과 족보에도 기록이 없어 정확히 밝히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신승운 교수에 의해 전순의의 본관이 鎭安임이 밝혀졌다. 즉 신교수는 전순의의 아들인 全碩童이 1469년에 증광진사에 합격한 기록을 『사마방목』 으로부터 찾아냈다. 그는 『사마방목』 으로부터 전석동의 본관은 鎭安 全氏요, 그의 부친은 전순의이며, 관직은 중추부 동지사요, 본인의 관력은 前贊儀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논자는 趙從耘의 『氏族原流』를 통하여 17세기까지 본관을 진안으로 한 씨족이 있었음을 거듭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전순의의 4대조, 즉 고려말부터 鎭安을 본貫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氏族原流』에는 全氏의 본관을 천안 전씨까지 포함하여 14곳으로 소개하고, 전순의를 진안전씨의 첫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신승운 교수의 주장처럼 전순의의 본관이 진안 전씨임을 재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全循義의 생애를 고찰하였다. 그의 가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는데다가 족보에 기록된 선대의 관직에 대한 기록도 부정확하여 고찰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전순의에 대한 언급만 해도 「세종실록」에 4건, 「문종실록」 6건, 「단종실록」 27건, 「세조실록」 19건, 「성종실록」 4건, 「연산군일기」 1건 등 61건이나 된다. 이에 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전순의 생애의 편린들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순의는 실록에 의하면 세종조부터 세조까지 약 30여 년을 어의로 활동하였음이 드러났다. 어의로 근무하는 동안 치료를 잘하여 상을 받기도 했지만 문종의 갑작스런 별세에 따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으로 몰려 의금부에 하옥되고, 내의원 조교로 강등되는 등 문책성 죄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세조가 즉위함에 좌익원종1등공신에 녹훈되고, 田地까지 받는 등 관직의 품계가 계속적으로 높아만 갔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세조의

찬탈이후 전순의의 승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마지막으로 전순의의 저술활동에 대해 정리해 본다. 전순의가 직접 참여하여 완성한 저서는 『醫方類聚』, 『鍼灸擇日編集』, 『山家要錄』, 『食療纂要』 등이다. 『醫方類聚』는 그의 젊은 시절에 해당되는데, 세종의 명에 의해 편집 작업에 참여했고, 『鍼灸擇日編集』은 김의손과의 공동작품으로 침구시술에 있어 擇日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그의 주장은 후대 허준과 허임과 같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山家要錄』은 전순의의 단독 저서이며, 신승운 교수의 소개처럼 한지와 온돌을 이용한 온실방법과 식품저장 비법과 물고기의 저장방법까지 소개한 책이다. 『食療纂要』역시 전순의의 저서로 식이 요법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상 전순의의 생애와 저술활동을 고찰한 결과 그의 한국의 학사적 위상에 대한 연구가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현실정치적 입장에서 전순의의 생애와 학문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와 학문이 과소평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문헌상으로 이름만 전해 오던 그의 저서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 이제 기존의 평가를 지양하고, 시야를 돌려 그의 구체적인 의술활동과 의학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朝鮮王朝實錄.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연산군일기.
2. 전순의, 김의손 공저. 針灸擇日編集. 序文.
3. 전순의. 山家要錄(김영진 역). 고농서국역총서 8, 농촌진흥청, 2004.
4. 전순의. 食療纂要(김종덕 역). 고농서국역총서 9, 농촌진흥청, 2004.
5. 조종운. 氏族原流. 보경문화사, 1991.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7. 최완기. 조선충의열전. 돌베개, 1998.
8. 孫弘烈. 조선중기 의술과 의학의 발달. 국사관논총 제56집.
9. 손흥렬. 여말 선초의서의 편찬과 간행. 한국과학사학회지, 11(1), 1989.
10. 신승운. 어의 전순의 상. 천안전씨세의 내막. 전북중앙신문, 7면, 2003. 11. 18.
11. 어의전순의 하. 저서와 한의학계의 평가. 전북중앙신문, 7면, 2003. 11. 19.
12. 육상원. 어의 전순의 하. 저서와 한의학계의 평가. 인터뷰 내용, 전북중앙신문, 7면, 2003. 11. 19.
13. 李鐘鎬. 조선왕조실록으로 본 문종독살설. 07. 05. 2006.
14. <http://blog.daum.net/ranbo/9227051>. 한국한의학회연구원. 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食療纂要 解題.